

합동전화

로카디파파, 17 giugno 2017 년 6 월 17 일

사랑을 가동시키십시오

(목차)

1. 시작 인사

- 로피아노와 연결, 헤수스 모란 인사.

2. 로피아노 – 로레토 학교: 가족이..... 학교에 갑니다

필리핀, 영국, 베트남과 러시아 네 가정이 35 년 전부터 전 세계로부터 수천 가정을 맞아들이는 학교에서의 자신들의 경험의 결실들을 얘기.

3. 세계 일치 주간: 우리가 생명, 용기, 평화입니다

로피아노의 플레시몹과 람페두사 전 시장이며, 유네스코 평화 상 수상자 쥬시 니콜리니의 말.

4. RUN4UNITY: 2017 년 전세계적 릴레이

뉴칼레도니아, 말레이시아, 과테말라와 멕시코에서 전 세계를 돌았던 "평화와 일치를 위한 달리기" 에 대해 얘기.

5. 헝가리: 오즈의 고정관념 타파

부다페스트에서 A 150 km 떨어진 곳에서 헝가리인, 집시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함께 나누며..... 서로가 형제임을 알아 보기 위해 만남.

6. 소피아 대학원 대학: 예산과 새로운 제안

학장 피에로 코다와 소피아의 새로움에 관한 인터뷰와 카메룬과 이태리 졸업생의 증거.

7. 함께 나아가며 – 일치를 향한 길 위의 그리스도인들

69 개의 다양한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속한 42 개국의 700 명 가량이, 로마 근교의 카스텔 간돌포에서 5 월 9 일부터 13 일까지 열린 포콜라레 역사에서 59 회를 맞은 교회 일치 주간 모임에 참석.

8. 이탈리아 – 바스마와 타티아나: 이방인에서 자매로

그리스도교인 타티아나와 무슬림 바스마 사이의 일상적인 깊고 구체적인 나눔의 경험. 민족들이 함께 만나는 상징적인 스토리이지만, 단지 서로 알아보고 받아들일 때 만 한 가족의 경험을 함.

9. 마리아보체와의 대화 (엠마우스)

마지막 교회 일치 행사들과 프란체스코 교황님과의 만남에 대한 느낌

10. 마르코 테칠라, 첫 남자 포콜라리노: 빛과 근본적인 삶

2011 년 한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한 짧지만 뜻 깊은 그의 스토리의 일화들.

11. 끼아라 루빅: 사랑을 가동시키십시오

'99 년 5 월 1 일에 끼아라 루빅이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카리스마와 목표에 관해 얘기.

12. 결론

1. 시작 인사

(인사와 박수)

파트릭: 안녕하세요? 로카디파파에서 인사 드립니다! 합동전화를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 강당에 계신 분들과 작거나, 큰 그룹 혹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분들께도 인사 드립니다.

제 이름은 파트릭이고, 슬로바키아 사람이며 신학생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신학생, 사제들과 공동체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라우라 아포스톨로: 저는 마리아 라우라이고, 17 살이며 이태리 남부에서 왔습니다. 막 자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를로타 라이몬도: 모두 안녕하세요. 전 세계로 넓혀지는 이 강당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카를로타이고, 23 살이며, 이태리 남부 태생이지만 5 년 전부터 밀라노에서 드라마 예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루이지 무라카: 저는 루이지이고 16 살이며 로마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인사 드리며, 저희에게 의견이나 느낌을 메일은 collegamentoch@focolare.org 로 핫잡 +393428730175 나 페이스북 CollegamentoCH 로 보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파타고니아에서 눈, 비 그리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박수) 합동전화 시작 바로 전에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친구들이 보낸 짧은 비디오가 도착했습니다.

한 젊은이 (남): 모두 안녕하세요! 푸에르토리코에서 인사 드립니다! 우리는 마리아폴리 후에 여기로 왔습니다. (노래) 차오! 항상 일치해요!

(박수)

루이지: 다시 한번 푸에르토리코의 친구들에게 온 마음 다해 감사 드리고, 이제는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 포콜라레 운동의 첫 번째 소도시인 토스카나 지역 로피아노와 연결하겠습니다. 그 곳에 안드레아 가 있습니다. 차오 안드레아, 제 말 들리세요?

안드레아 카르디날리: 차오 로카디파파, 로피아노에서 인사 드립니다! 요즈음 소도시의 길들에서는 엠마우스와 헤수스 그리고 사업회 총본부 식구들의 현존으로 인해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헤수스 곁에 있는 것이 보이지요, 이제 마이크를 헤수스에게 넘기겠습니다.

헤수스 모란: 차오!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엠마우스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이 곳 로피아노에서 며칠 살기 위해 총본부 몇몇 식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죽을 정도의 열기로 가득한 뻑뻑한 일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으로 인해 매우 행복합니다. 산 위의 도시인 로피아노에서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

안드레아 : 헤수스 감사합니다.

2. 로피아노 – 로레토 학교: 가족이..... 학교에 갑니다

안드레아 : 지금 우리가 로피아노에 있으니 이 소도시를 조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와서 이 곳 로피아노의 가정들을 위한 학교인 로레토 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살고 있는 몇 가정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탈리, 필리핀 (in inglese): 작년에 갑자기 “로레토 학교에 가면 어떨까?”라고 하기에, 나는 “네,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에우제네, 필리핀 (in inglese): 전 세계로부터 가정들이 부부의 삶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오기 때문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

제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인데, 함께 시간을 더 보낼수록, 서로를 더 알면 알수록 마찰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나탈리 (in inglese): 어느 순간, 우리 사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밖으로 나가길 원했고, 나는 “좋아, 그럼 가족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우제네 (in inglese): 이 곳 사람들, 가정들,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깨닫게 도와줍니다.

(음악)

폴, 영국(in inglese): 우리는 참된 가정의 경험을 하기 위해 런던을 떠나 로피아노에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보고,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등을,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스안젤라, 영국(in inglese): 우리는 로피아노에서 영성의 진가를 특별히 더 잘 알아보게 되었는데, 영성이 이 곳에 생기를 불어넣고 특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해 주는데, 이 것이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곳은 없지요.

폴 (in inglese): 우리는 새 가정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와 이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나눌 기회를 갖습니다.

(음악)

반, 베트남 (in vietnamita):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후, 음식, 언어,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교육도 베트남과 많이 달랐습니다. 매 수업에서 우리는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웠고, 이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자녀들을 베트남 문화에 따라 교육하지만 서양식으로도 교육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이 두 문화를 접목시켜 나갑니다.

차우, Vietnam (in vietnamita): 제가 로피아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제 수입이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우리 가족들,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두의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레고리, 러시아 (in russo): 여기 오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직장에 관한 일과, 집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지, 우리 부모님과, 친지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 지 등 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은, 진정 하나의 기적으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리아, 러시아 (in russo): 그래요, 러시아에서 특히 아이들을 위해 1 년용 비자를 받는 것은 정말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 곳의 모두가 성인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이 것이 우리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고 또 한 해 내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레고리 (in russo):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개방성입니다. 우리는 시베리아, 러시아의 친구들과도 개방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는 정말 일치 안에서 사랑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배경)

에우제네 (in inglese): 필리핀으로 돌아가면서 어떨지를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탈리 (in inglese):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기로 한 것,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기로 한 것을 인식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특별히 다시

시작하는 면에서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다룬 때에도 예전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요. 미안해요, 다시 시작해요!”라고 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마르치아, 로피아노 (in italiano): 1975 년 11 월에, 우리는 한 작은 그룹의 이태리 가정과 한 국제적인 가정이었는데, 끼아라가 큰 기쁨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는 모범적인 한 가정을 보았는데, 여러분은 하느님 자녀들의 가정이에요!”라고 했습니다 (...) 이는 예언자적인 것이었는데,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소수였지만, 해가 가면서 점점 더 많아져서, '82 년에 끼아라는 가정들의 학교를 창설했습니다.

(음악)

자막 (in italiano): 1982 년부터 전 세계로부터 수천의 가족들이 로피아노의 로레토 학교에서 일정 기간을 지냈다.

(음악 과 박수)

카를로타: 자신들의 스토리를 들려준 가정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로피아노와는 나중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3. 세계 일치 주간: 우리가 생명, 용기, 평화입니다

카를로타: 이제 다른 소식인데,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이 주인공으로 특별히 세계 일치 주간에 관한 소식입니다. 5 월에 시작하여 젊은이, 청소년들이 활동, 행사, 이벤트 등을 통해 형제애가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 주었습니다.

루이지: 올 해 세계 일치 주간은 5 월 1 일, 로피아노에서 개최 했습니다. 이태리 전역과 다른 대륙을 대표하여 3500 명이 모였습니다. 젊은이, 예술가들,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통해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카를로타: 우리는 특별히 이태리 남부에 있으며 매년 전쟁이나 가난으로 인한 수 천 수만 명의 난민들이 도착하는 람페두사의 당시 시장을 초청했습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한 말씀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플래시몹 박수)

쥬시 니콜리니, 람페두사 시장, 유네스코 평화 상 수상: 만일 이 것이 정말 남자들, 여자들과 아이들, 임신한 여자들과 리비아에서 출발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라면, 누가 그 여행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자신의 아이들을 그 고무 보트 위에 올리기가까지는 참으로 절망적이고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모든 이는 바다에서 구조될 권리가 있습니다. 람페두사 시민들에게도 람페두사에서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

오늘 나는 람페두사와 로피아노 사이에 진정한 다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다른 모든이들에게는 유토피아인 연대적인 경제, 일치 안에 함께 하는 것을 위해 우리 모두는 투쟁하고 광범위한 환대의 모범들과 제안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함께 해 낼 수 있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일상적인 작은 행위들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우리는 그 미래가 인간적이고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노래)

(음악 과 심장의 고통- 박수)

4. RUN4UNITY: 2017 년 전세계적 릴레이

루이지: 세계 일치 주간 중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일치와 평화를 위한 연례 릴레이 RunForUnity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7년에는 오세아니아에서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110 개 도시를 거치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동참시켰습니다. 그럼 4 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스피커 (남자 음성) (in italiano): 다리를 건설하고, 가장 심한 분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가고, 문화, 사회, 종교의 차이점 안에서 일치와, 형제애를 실현한 공통점을 지닌 '세계적 Run4unity' 행사 중 4 개를 세계를 재빨리 돌며 간략히 소개 하고자 한다.

자막: 뉴칼레도니아

스피커 (여자 음성) (in italiano): "대화의 땅, 나눔의 땅" 은 뉴칼레도니아의 모토이다. 오스트렐리아 동부 해안의 1.500 킬로미터에 이르는 섬으로, 다양한 종족과 문화가 평화로이 공존하지만, 최근에 특히 세인트 루이스 부족이 긴장의 순간들을 살았다

여자아이 (in francese): 우리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하루 모임을 준비했는데, 그 곳은 최근에 군부와 많은 충돌이 있었고, 사망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Run4unity 를 하기로 했어요. (...)

여자아이 (in francese): 80 명이 모여 게임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오에 타임아웃 기도를 한 후에 공 던지기를 했고, 모두와 우애의 다리를 건설하고 끝마쳤어요.

(노래)

마지막에 세인트 루이스의 책임자가 방문하여 우리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가져가게 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룹: *Merci ! Au revoir !*

그룹: Ciao!

자막: 말레이시아

남자 아이(in inglese): 말레이시아 피난의 일치된 세계를 위한 청소년들은 올 해 처음으로 Run4Unity 행사를 조직했어요.

여자 아이(in inglese): 젊은이, 노인 등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치를 위한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 부족과 문화, 종교인들 1200 명이 참가했어요.

라자루스 조나단 집사 (남) (in inglese): 이 행사를 실제로 조직한 사람은 어른들이 아니라 포콜라레 운동의 청소년들임을 아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 젊은이들은 내일의 리더들이 아니라 현재의, 이 현 순간의 리더들입니다!

여자 아이(in inglese): 우리는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피난의 총리께서 Run4unity 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기뻐요.

디에고 (in spagnolo): 차오 저는 디에고 인데, 합동전화를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막: 과테말라

룰루(in spagnolo): 차오, 저는 룰루입니다. 우리는 과테말라의 제 2 도시였던 아름다운 안티구아 시에 있습니다.

산타 루시아 우타틀란에서 Run4unity 행사를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3 젠들과 일치할 위한 청소년들에게서 나왔는데, 우리 지역 문화를 알고, 조상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의 문화를 과테말라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활동을 시장의 지원과, 시청과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고, 학교들의 참여도 약속 받았습니다.

디에고 (in spagnolo):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방으로 알려진 산타 루치아에서 Run4Unity 행사를 하고자 했는데, 과테말라 전체에 일치된 가운데 평화를 확산시킬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룰루 (in spagnolo): 라틴, 마야 케티켈세, 마야 키체 세 부족의 아이들, 젊은이 어른 약 800 명이 참가했습니다.

디에고 (in spagnolo): 1 km, 2, 4, 6 km 4 개의 경주가 있었는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 경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룰루 (in spagnolo): 서로 다른 부족 그룹에서 받은 선물은, 그룹으로 일하는 것과 보편적 형제애의 가치를 배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보고를 끝맺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들었기 바랍니다.

디에고 (in spagnolo): 과테말라 안티구아에서 세로 드 라 크루즈의 모습을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인사 드립니다

노에 (in spagnolo):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노에 헤라입니다. 우리는 멕시코-뉴칼리포니아 멕시칼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Run4unity 가 태어나게 되었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이 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벽을 가리킴)*

(음악)

스피커 (남자 음성)(in italiano): 우리는 두 나라를 가르는 철조망과 탑들의 금속 장벽이 있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역에 있는데, 멕시코의 멕시칼리 지역과 미국의 칼레시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장벽의 한 쪽과 다른 쪽에서 동시에 경주를 하기로 했다.

자막: 멕시코와 미국

여자 아이 (in spagnolo):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경은 가까운 두 나라 미국과 멕시코의 분리의 상징이지만, 단지 그 하나의 상징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일치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은, 형제애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스피커 (여자 음성) in italiano: 두 그룹은 마라톤을 계속해 나가면서 두 나라의 국기에 평화의 상징으로 흰색 기를 합치면서 함께 만났다. 한 지역 티비 방송국에서 이 경주를 중계했다.

(음악)

소년 (in spagnolo): Run4unity 는 정말 제 마음에 들었어요. 나라들 사이에 장벽이 있어 우리를 분리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에요.

(음악, 박수)

5. 헝가리: 오즈의 고정관념 타파

마리아 라우라: Run4unity 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의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문화와, 자주 서로 간에 분쟁이 있는 서로 다른 민족 사이의 결합의 순간을 이끌어 내도록 해주는, 헝가리에서 이룬 것과 같은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파트릭: 헝가리에서 이미 2 년간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한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 보기로 합시다.

[tutto in ungherese]

실비아 스카트랄리, 이태리 포콜라리나 (in ungherese): 우리는 학교의 교장, 교사 그리고 학생들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식사하고, 놀고, 웃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으며 하루를 지내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음악)

우리는 "각자에게 운동화 한 켤레"라는 제목의 활동을 제안하여, 하루 동안 우리가 모은 것을 기쁘고도 엄숙하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코스카 아네스, 학교장 (여): 우리는 헝가리 북부의 이 작은 도시 오즈의 학교들 중의 한 학교 강당에서, 부다페스트와 오즈의 이태리 인들과 다른 국가 사람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파브리 페틀, 심리학과 학생 (남): 예를 들어 청소년 캠프를 도와주는 것처럼, 조금 어려운 곳에 가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나를 밀어주는 기회입니다.

포나 가보를 니에쵸, 오즈드 포콜라레 공동체 (여): 나는 이런 순간들을 늘 기쁘게 기다리는데 우리의 문제,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고, 우리의 고통도 함께 나누고.....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리작 파니 수지, 오즈드 포콜라레 공동체 (여): 아지 부인이 저를 한 가정 축제에 초대했는데, 제게는 아주 좋았고 마치 하나의 소명처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코스카 아네스, 학교장 (여) : 공동체를 장려하고 건설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과제입니다. 공동체와의 개인적인 관계 없이는 가르치고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 출신으로, 집사가정, 외부와의 접촉보다는 단혀 지내는 가정

출신입니다. 오늘과 같은 가족적인 순간에는 학생들이 긴장을 풀기 때문에 그들 가족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쉬워지므로 근본적인 매우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실비아 스카트칼리, 이태리 포콜라리나 (in ungherese): 우리는 많은 이가 집시들에 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또 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우리의 도전은 그 작은 선, 그 희망, 그 작은 씨앗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무에는 없지만, 씨앗에는 있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엿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음을 알고 또 봅니다, 이를 매우 잘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이 있습니다.

파브리 페틀, 심리학과 학생 (남): 우리는 집시들과 헝가리인들 사이의 관계의 고정관념을, 단지 개인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통해 타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시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부모들의 삶과 매우 유사한 삶을 살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의 책임감과 과제를 지니는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그들에게 다른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실비아 스카트칼리, 이태리 포콜라리나 (in ungherese): 사실 우리는 형제가 되고, 형제애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는 이 형제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는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러우니 사랑만 하면 되며, 그들은 즉시 이 사랑을 느낍니다. 많은 때 우리는 매우 복잡한데, 그들은 오히려 마음으로 말합니다.

마리아 라우라: 오즈의 친구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박수)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찬란한 통합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 주었습니다.

6. 소피아 대학원 대학: 예산과 새로운 제안

파트릭: 새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사람들,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형성된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로피아노에 자리한 학문과 삶, 학제간 교육의 장인 소피아 대학원 대학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음악)

피에로 코다: 소피아는 10 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400 명의 학생들이 거쳐갔고, 120 개 이상의 석사 학위와 15 개의 박사학위가 수여됐고, 학생들은 중요하고 인지도 높은 전공 분야와 학술 분야에 취직했습니다.

코스탄틴 아케이바르, 카메룬 (남) (in italiano): 나는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에서 일하는데 프로젝트의 재무분석과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지출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나에게 이 목적을 위해 완전한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경제에 관한 인간적인 관점을 열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철학, 신학과 같은 다른 학문의 가능성도 제공했습니다. 이 학제적 관점은 나의 능력에 내 직장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발전의 가치도 더해 주었습니다.

조르지아 살바토리, 이태리 (여): 나는 우리 도시 피렌체 근교, 캄피 비센지오의 시장참모로 일합니다. 시민들의 공공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와 활동의 참여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학, 국제협력을 공부했고 소피아에서는 경제 및 관리를 수학했습니다.

소피아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남겨주었는데, 좋은 대인 관계능력과 그룹으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능력입니다. 현실에 대한 폭넓은 비전을 지닐 능력을 주었는데 나는 경제와 더불어 신학, 사회학, 정치학도 수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제에 관한 위대한 발견도 했습니다.

피에로 코다: 10 주년을 맞아 하나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어, 전통적인 ‘일치의 문화’학위에 삼중의 제안이 열렸습니다. 국제적 차원의 참여를 돕기 위한 영어 수업으로 정치학과 경제학 학사학위와 철학적, 신학적 차원의 삼위일체론 석사학위가 덧붙여졌습니다. 대학들과 여러 주(州) 차원의 쌍방 학위 인정으로, 인간 가정의 현주소와 인간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Sophia Global Studies’ 고급 교육센터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정치, ‘Eoc 경제’ 등 마리아 사업회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분야에 커다란 개방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가정의 참여로, 자격을 갖춘 가정에 관한 한 센터가 태동 중입니다.

(음악, 박수)

7. 함께 나아가며 – 일치를 향한 길 위의 그리스도인들

파트릭: 제 주위에 많은 고통이 있음에도, 제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사랑은 모든 분리를 넘어 간다는 희망의 표징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표징들 중 하나는 일치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게 깊은 감명을 주는데, 저도 하나의 큰 행사인 교회 일치 주간의 증거자입니다.

마리아 라우라: 교회 일치 주간은 지난 5 월에 카스텔간돌포에서 열렸는데, 이에 대해 말해주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피커 (여) (in italiano): 루터교 개혁 500 주년을 맞았다. 한 젊은 독일 수사는 이렇게 썼다. «말씀이 꽃 피어난다면 교회 안에서 꽃 피어날 것이다». 역사의 사건들은 깊은 분리를 초래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일치를 지향하도록 사람들과 그룹들을 움직이셨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트렌토의 한 처녀인 끼아라 루빅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서를 펼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 작은 그룹의 삶으로부터 하나의 혁신이 태어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과 동양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고 일치시킬 것이었다.

자막: 런던 1996 년 11 월 16 일

끼아라 루빅, 포콜라레 운동 창설자: 우리의 대화는 삶의 대화, 백성의 대화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개혁신교 (...) 우리를 단 하나의 백성으로 일치시킨 것입니다. (...). 이것이 우리의 교회일치입니다. (...) 그 어떤 신학적 어려움도 사랑에 제동을 걸 수는 없습니다!

미리암 위베이, 감독교회, 스코틀랜드 (여) (in inglese): 나는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교회에 관해, 조직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모두 사랑을 주시하고, 서로간의 사랑에 관해 얘기합니다. (...) 우리가 듣는 많은 얘기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것입니다.

(음악)

스피커 (여): 69 개의 다양한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속한 42 개국의 700 명 가량이, 로마 근교의 카스텔간돌포에서 5 월 9 일부터 13 일까지 열린 포콜라레 역사에서 59 회를 맞은 교회

일치 주간 모임에 참석했다.

파올레트 덴게이, 침례교회, 카메룬 (여) (in francese): 우리는 선입견으로 가득 찬 (...) 무거운 가방을 지니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에프로신 수사, 동방교회, 세르비아 (남) (in serbo): 세 순간이 (...) 인상적이었는데, 첫째는 카타콤바에서의 기도시간으로, 우리의 차이점 안에 얼마나 많은 부(富)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지녔었는지 안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오로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교단에 관계없이 각자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며, 세 번째는 다양한 교단의 전례에서 모두가 특별한 기쁨에 쌓였던 것입니다.

이브라힘 게드, 콥트 정교회, 이집트 (남) (in arabo): 나는 이 모임에 오면서 다양한 언어, 전례 그리고 국가 때문에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착했을 때는 우리 모두를 일치시키는 것은 사랑임을 발견했습니다. (...) 여기서 우리는 참 사랑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 끼아라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 그 녀는 사람들을 사랑 안에 일치시켰습니다.

(노래)

게나디오스 제르보스 대사제, 이태리와 몰타 동방교회 대주교 (남) (in italiano): 끼아라 루빅은 1967 년 6 월 13 일에 처음으로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 주교관을 방문했습니다. 아테나고라스 총 대주교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끼아라 루빅은 8 번의 여행을 통해 총대주교님을 25 번 만났습니다. (...) 아테나고라스, 끼아라, 바오로 6 세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의 화해의 "주역 삼총사" 였습니다.

스피커 (여): "함께 나아가며" 는 단지 하나의 타이틀만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기쁨과, 프로그램을 풍요롭게 해준 권위 있는 발언들, 바르톨로메오 1 세 총대주교의 메시지와 로마 주교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메시지 등도 모두로 하여금 "일치를 향한 공동의 발걸음을 계속해 가도록" 용기를 주었다.

호세 프란체스코 살라자르 바스퀘스 신부, 성공회, 베네주엘라 (남) (in spagnolo): 참된

교회 일치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저희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차원의 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무르익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참으로 필요한 사랑과 화해의 예언적인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크라우스 은퇴 주교, 루터교 세계연맹 전(前) 대표, 독일 (남) (in tedesco): 저는 이 모임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국가와 다양한 교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매우 부유해 졌습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으로 아름다운 친교를 체험했습니다. (...) 계속해서 일치와 이해, 나눔을 지향했습니다. (...) 성령께서 역사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친교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가 정말 필요한데, 이는 바로 포콜라레가 주력하는 점입니다.

자막: 기자회견 (카스텔간돌포), 2017 년 5 월 12 일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여): 하느님의 바램이기에 분명히 도달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류 가족 전체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기에 완전히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기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현되는 것이고,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청하시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음악, 박수)

파트릭: 이제 로피아노와 연결하겠습니다...

루이지: 네, 그럼 로피아노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전 세계로부터 도달한 몇 개의 메시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두라스에서 온 것인데 스페인어로 읽겠습니다. "혼두라스, 테구시갈파에서 인사드립니다!"

카를로타: 아프리카 "브룬디에서 인사 드립니다. 기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루이지: 앙골라에서도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앙골라 공동체도 마리아폴리 센터에서 여러분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치를 보냅니다!"

카를로타: 알바니아에서도 "티라나에서 인사 드립니다. 40 명이 합동전화에 함께하는데, 참으로 특별한 분위기입니다!".

8. 이탈리아 – 바스마와 타티아나: 이방인에서 자매로

마리아 라우라: 로피아노와 연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운동에서는 일치에 대해 여러 번 얘기하고 저도 제 삶에서 한 무슬림 가족과 정말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합니다.

라티나의 바스마와 타티아나도 이와 흡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스마: 저는 바스마이고, 튀니지 인이며 무슬림이에요.

타티아나: 저는 타티아나이고 이태리 사람이며, 크리스천이에요. 여기는 바스마의 아들 아메드이고, 미리암은 제 딸이에요. (...) 우리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저는 바스마를 학교 앞에서 알게 되었어요.

바스마: 타티아나는 "저 엄마는 아무와도 얘기를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다 어느 날 제게 "이태리어 못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어 꽤 해요."라고 했고 그 때부터 서서히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날 타티아나가 저를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아이가 여섯이나 되는데 또 임신을 했네, 하느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벤, 그 가정이 이러저러하니..... 쿠스쿠스를 요리해 주면 좋겠어요."라고 했더니, "쿠스쿠스 요리를 해서 그 집에 가져다 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깜짝 선물로 요리를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타티아나는 벤에게 고맙다고 했고, 즉시 내게 전화를 해서는, '바스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물이 나올 뻔 했어요'라고 했어요.

나는 타티아나에게, 너희 가정이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처럼 기도 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고, 너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어"라고 했어요. 그랬지요?

타티아나: 네, 맞아요.

바스마: 그리고 결코 무슬림을 크리스천들과 분리시켜서는 안돼요.

타티아나: 저는 바스마에게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매 순간 하느님께 감사 드리는 것을 배웠어요. *abdulalla [espressione in arabo]*

바스마: 훌륭해요 타티아나. 아랍어를 배웠네요!

반면에 저는 타티아나에게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 배웠는데, 어떤 것이든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

벤이 3 월 13 일 새벽 2 시에 잠이 깨서는 내게 말했어요. “바스마 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는 구급차를 부르고, 타티아나에게 전화했어요. *[si commuove]*

타티아나: 그리고 벤은 병원으로 갔는데, 벤이 뇌졸중이었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아주 위중했고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했어요. 바스마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저는 바스마와 함께 그 고통을 끌어 안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랐는데,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자매였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어요 ...

바스마: 정말 어려웠어요...

타티아나: 어려웠는데, 벤이 점점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스마: 타티아나는 매일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갔다가 다시 와 집으로 데려다 주곤 했는데, 벤이 악화되기 전 어느 날 타티아나가 왔을 때, 벤이 말했어요. “타티아나에게 바스마를 맡겨요!”.

타티아나: 병원에서 근무하던 제 남편 바오로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바오로가 나에게 “타티아나, 벤이 임종 중이니 빨리 와요” 라고 했어요. 저는 바스마의 자매로서 벤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동행하기 위해 거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벤은 죽었어요. 모두가 깊은 고통에 빠졌지요. 바스마는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했어요. 단지 소중한 자녀들의 사랑이 그를 진정으로 도와 주었어요.

바스마: 이 직장 일이 제게 주어지기까지 저는 기쁘면서 또 동시에 슬펐어요. 저는 직장 일에 정말 감사한데, 저와 제 자녀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타티아나가

내게 전화해서 “바스마 어떻게 지내요?”라고 해서 “다 잘되 가고 있고,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라고 했더니, “직장 찾았어요?”라고 하기에, “찾긴 했는데, 새벽 4 시에 가야 해요”라고 했더니, “바스마 걱정 말아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라고 했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를 우정이라기 보다 그리스도교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커다란 릴레이가 시작됐어요. 매일 누군가가 나를 동반해 주었고, 직장에서 나도 모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나를 직장에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는데, 내 동료들이 늘 나를 태워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늘 나의 그리스도교 형제 자매들이 얘기하는 한 문장을 배웠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타티아나: “사랑이 없는 곳에, ...

바스마: 사랑을 심으면

함께: 사랑을 발견할 것이다.

(박수)

파트릭: 바스마와 타티아나 감사합니다!

9. 마리아보체와의 대화 (엠마우스)

파트릭: “오늘 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일치 주간에 기자들에게 엠마우스께서 한 말입니다. 이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로피아노와 다시 연결하여 엠마우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드레아 : 연결됐나요? 이제 엠마우스와 함께 있습니다.

엠마우스, 우리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몇몇 모습을 보았는데 특히 지난 6 월 마시모 경기장에서 국제 가톨릭 성령쇄신 운동 행사 때 교황님께서 엠마우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엠마우스: 우선 참으로 큰, 기대치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두 추기경님 사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무대로 나가시는데 바로 나를 데리고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는데, 그 무대 위에서 저를 향한 교황님의 그 사랑의 눈길은 사업회 전체를 향한 것이었고, 사랑이었지만 또한 신뢰였으며, 우리가 같은 목표 즉 일치에 대해 일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사실 교황님과 함께 한 그 순간은 전 기간 동안 거쳐온 과정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뮌헨에서 교회 일치적인 모임이었던 '함께 유럽을' 행사를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님'의 새로운 해를 열면서 "대화의 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대화를 지향하게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전체 평의원들과 함께 오토마링에 갈 생각이 들었는데 왜 오토마링인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오토마링은 교회 일치적 소도시이므로 올 해 특별히 대화를 살고자 했으니, 이것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토마링에서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더 내디뎌야 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포콜라레 운동이 이 발걸음에 열중할 것을 알고자 오토마링 선서를 작성하여, 모든 교회의 책임자들과 수많은 교계와 사회 인사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 발걸음은 단지 포콜라레 운동 만의 것은 아니었으니, 개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루터교 개혁 500 주년을 맞았음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교황님께서 룬드를 방문하시어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 수장들이 포옹하시는 것을 보았고 이는 참으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 몰타에 갔는데, 예정에 없었지만 '교회 일치 위원회' 40 주년을 맞아 포콜라레 운동의 교회일치에 대해 알고 싶어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것 또한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깊은 경청과 존중 속에서 포콜라레 운동의 교회 일치에 관해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 대화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대화의 해라고 말했는데, 어느 한 쪽에서 시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라고 하시며 바탕으로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는 이 일치의 관계를 시작한 교회 일치 주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일치 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우리는 함께 발걸음을 내딛고,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사랑, 같은 세례로 일치된 백성을 발견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듯이 목표는 함께 걸어 나아가면서 도달하고, 일치에 걸어서 나아가면서 이룹니다. 이 발걸음은 함께 할 때 더 용기를 갖게 되고 가속됩니다.

또한 우연의 일치로, 마시모 경기장에서 교황님 알현이 있던 날 아베니레 신문에 교회 일치 주간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치는 하느님의 뜻이므로 속도를 가해야 한다” 였습니다. 가속은 바로 함께 걸어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함께 나간 것이 내게는 이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 평신도, 운동들, 특별히 일치를 위해 사는 한 운동의 손을 잡은 것은 거기 있던 모든 이들에게, 가톨릭 성령쇄신 운동의 축제였지만, 단지 가톨릭뿐 아니라 몇 몇 추기경님을 제외하고 무대 위에는 가톨릭이 아닌 모든 성령쇄신 운동들의 지도자들도 교황님 바로 곁에 초대되어 있었으므로 그 모든 이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 발걸음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당신께서도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것은 나에게 매우 큰 기쁨이었는데 나는 교황님과 교회로서 함께 나아감을 느꼈고, 이 일치 덕에 일치를 향한 발걸음이 가속화 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 감사합니다. 엠마우스. *(박수)*

마리아 라우라: 엠마우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 정말 우리 마음에도달하여, 일치를 건설하고자 하는 원의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10. 마르코 테칠라, 첫 남자 포콜라리노: 빛과 근본적인 삶

루이지: 이제 한 중요한 스토리를 얘기할 텐데, 마르코 테칠라의 삶입니다. 마르코는 지난 5 월 8 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포콜라레의 길에서 끼아라를 따랐던 첫 남자 포콜라리노였는데, 그 때까지는 여자 포콜라리나들만 있었습니다.

카를로타: 그의 삶은 1958 년에 마음 속에 일치의 이상을 가져가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브라질로 떠나던 그 때부터, 늘 손에 가방을 든, 예외적인 삶이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계속했으니, 3 년 전에 89 세의 나이로 쿠바의 포콜라레 공동체를 방문한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루이지: 우리는 마르코가 자신의 모험의 시작을 얘기하는 2011 년도의 한 인터뷰에서 3 개의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마르코는 19 세 때 트렌토에서 약간 "광신적"이라고 칭하며 좀 멀리 하던 한 그룹의 처녀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회의 카시미로 신부님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를 한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마르코가 이 모임에 대해 얘기한 것을 보겠습니다.

마르코 테칠라: ...문이 열리고 처녀들 한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그 사람들이구나!"했지만, 좀 안쪽에 꼭 끼어 앉아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기쁘고 미소 띤 얼굴로 의자에 앉았고 신부님 자리에 한 젊은 처녀가 앉기에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고, 짙은 검은 머리를 지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녀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처녀들 쪽을 보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끼아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는 아직 실비아였습니다. 나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는 팔을 이렇게 올려 턱을 괴고 마치 홍수와 같은 그 말들을 마시고 또 마시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끼아라는 정말 힘이 있었는데 ... 마치 하나의 불길 같았으며 ... 내게 무언가 거대한 것을 전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해 내게 얘기해주었습니다. 말 들은 더 이상 기억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거룩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의 선물이었고,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처녀들을 맹신자, 광신자들로 생각하게 했던 그 비늘들이 내 눈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를로타: 마르코는 수리를 잘하는 전기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카푸치노 광장의 한 작은 집에서 살고 있던 한 그룹의 처녀들 집의 전기 고장 수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테칠라: 나는 낮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늘 저녁 식사 시간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 그리고 나는 사다리나 의자 위 등 일하는 곳에서 식탁에서 네 다섯 명의 처녀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끼아라는 내가 있다는 것은 별 상관하지 않고 얘기를 계속하곤 했는데, 늘 복음적인 얘기였으며, 내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의자에 앉아서 좀 쉬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

"우리는 복음적인 혁신을 이루기 원합니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코미디언들 같은데, (...) 일요일이 오면 마치 한 순간, 미사 시간 30 분정도의 과제인 듯, 그리스도인의 분장을 하고, (...) 그 이후에는 자유인, 한 평범한 시민으로 되돌아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계실 때는 24 시간 내내 예수님이셨습니다. 배에 계실 때도, 배에서 주무실 때도, 한 기적을 이루실 때도,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가실 때도, 군중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늘 예수님이셨습니다. (...)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날, 이 세기에 오신다면 아마도 나와 같은 노동자, 제복을 입은 한 전자 기술자이겠지만 항상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카센터에 계신 예수님, 교회에 계신 예수님, 길을 가는 예수님, 즐기는 예수님, 가정에 계신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이 담화는 나를, 내가 모르던 예수님 앞에 세워 주었습니다. (...) 나는 강한 부르심을 느꼈는데, (...)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24 시간 내내 예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방, 그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을 따라 한 낮은 벽이 늘어 서 있었는데, 거기 기대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내게 하느님은 하늘보다 멀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긴 했었지만, 2,000 년 전이었고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시다! 그 순간 나는 하나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하늘 보다 멀리 보이던 그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셨습니다! 끼아라가 내 안에 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루이지: 마르코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늘 결혼하여 한 가정을 꾸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혼란스러워져, 카시미로 신부님께 몇 마디 말을 했고, 신부님은 즉시 끼아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끼아라는 직접 마르코에게 답을 썼습니다.

마르코 테칠라: 나는 그 편지를 받고는 집으로 날아 올라가서 방에 들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 편지를 읽고 분명히 깨달은 것은, 그 보다 더 분명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끼아라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60 년 이상이 흘렀지만, 결코 조금의 의심도 지닌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강하고, 꿰뚫는 그 빛은 나를 휘감았습니다!

(음악, 박수)

카를로타: 하느님께 ‘네’를 드리고 늘 충실했던 마르코께 감사 드립니다.

11. 끼아라 루빅: 사랑을 가동시키십시오

카를로타: 오늘 모든 스토리가 우리에게 하느님께 '네'라고 답하는 것은 우리를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에 대해 끼아라가 '99 년도에 젊은이들에게 한 메시지'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현실적이고 무엇보다 일치의 길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하는 얘기임을 느낍니다.

끼아라 루빅: (...) 이 일치의 모험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험은 내가 아니라, 다른 분께서 원하신 때에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가끔 하느님의 은사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특은이라고 해요.

역사를 좌우하시고, 명확한 목표인 선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분께서 보내 주시는 선물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 모두도 그 목표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를 수 있는 선이에요.

그분은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이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오래 전에 이 특은 하나가 여기에도 도착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당시 젊었던 우리들에게 멋진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의 과제, 하나의 사명과도 같은 그 계획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사랑이 타오르게 함으로써 모든 이가 하나가 되도록 일하는 것이었어요. 환상이라고요? 유토피아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께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면, 성자 하느님과 단 하나이신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굳건히 발을 내디뎠어요. 이제 온 세상 거의 모든 나라에 있는 청소년, 젊은이, 어른들의 숫자는 수백만에 달해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신앙이 있거나,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없을 수 없는 선함을 지니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도 함께 보편적인 가정, 일치된 세계 건설의 목표를 향해 걸어 나아가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겠어요? (...)

이제 여러분이 한 면에는 "일치,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까지 서로 사랑하자"가 다른 한 면에는 그 수단, 노고, 노력, 세상에 단 한 가족이 꽃피어 나게 하기 위해 고통 받을 준비도 되어 있을 것을 얘기하는 우리 이상의 깃발을 흔들 때예요.

여러분은 젊고, 젊은이들에게 용기는 부족하지 않지요. 우리가 해 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라고 왜 못하겠어요?

(박수)

12. 결론

마리아 라우라: 끼아라는 우리에게 이 도전을 제안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장애물들이 꺼트렸을 수도 있는 불꽃을 다시 지피도록 밀어줍니다.

루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끼아라의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끼아라와 오늘 우리가 본 역사의 주역들이 한 것처럼 사랑을 재 가동시키고자 합니다.

카를로타: 끼아라의 격려로 끝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멀리서 우리와 함께 해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고, 작별인사 드립니다.

파트릭: 9 월 16 일 이태리 시간 정오에 있을 다음 합동전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차오!

(박수)